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
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Zoo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정이 있어 참석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날 목요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
길 바랍니다.

4. 주일 애찬 교제 모임

오늘은 본당 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뉴저지 아버지 학교

오늘로서 마지막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
립니다.

6. 종려주일&부활주일

4월 13일(주일) : 종려주일 예배
4월 20일(주일) : 부활주일 예배

지난 주 (3/30)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95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장헬렌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특송 Special Song	중창팀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4장 12-14절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그분의 식탁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4월 13일(종려주일)	4월 20일(부활주일)
Chris Choi	서경열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낮아짐

누가복음에서만 벌써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저저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 구절 바로 앞구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힘이 되고, 믿음이 없다는건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바로 그 수종병 걸린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언제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윗자리란 하나님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죄된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낮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주인을 경배하는 자리로 내려 갑니다. 교회는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그것이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안디옥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명의 크리스천들이 세웠고, 담임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소리를 최초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교회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낮아짐이 있습니까?